〔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바람 소리
들리더니
소소한 대바람 소리
창을 흔들더니

소설(小雪) 지낸 하늘을
눈 머금은 구름이 가고 오는지
미닫이에 가끔
그늘이 진다.

국화 향기 흔들리는
좁은 서실(書室)을
무료히 거닐다
앉았다, 누웠다
잠들다 깨어 보면
그저 그런 날을

눈에 들어오는
병풍의 '낙지론(樂志論)'을
읽어도 보고……

그렇다!
아무리 쪼들리고
웅숭거릴지언정
— '어찌 제왕의 문에 듦을 부러워하랴'

대바람 타고
들려오는
머언 거문고 소리……

- 신석정, 「 대바람 소리 」 -

(나)

나도 봄산에서는
나를 버릴 수 있으리
솔이파리들이 가만히 이 세상에 내리고
상수리나무 묵은 잎은 저만큼 지네

봄이 오는 이 숲에서는
지난날들을 가만히 내려놓아도 좋으리
그러면 지나온 날들처럼
남은 생도 벅차리
봄이 오는 이 솔숲에서
무엇을 내 손에 쥐고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두리
솔숲 끝으로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고
박새들은 솔가지에서 솔가지로 가벼이 내리네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 거니는 숲이여 거기 이는 바람이여
찬 서리 내린 실가지 끝에서
눈뜨리
눈을 뜨리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솔숲에서

- 김용택, 「그대 생의 솔숲에서」 -

16.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절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③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⑤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자연물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석정은 지조를 지키는 삶을 중시했던 작가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어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에 인용된 낙지론의 말미에는 '豈羨夫入帝王之門哉 (어찌 제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겠는가)'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세속적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가난하지만 지조를 지키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잘 형상화되고 있다.

① '좁은 서실'은 무료한 일상의 공간이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이다.
② '그렇다!'라는 독백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다짐으로 이어지고 있다.
③ '쪼들리고 / 웅숭거릴지언정'은 화자가 벗어나려는 가난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제왕의 문'은 화자가 부정하는 세속의 부귀영화를 의미한다.
⑤ '대바람 타고 / 들려오는 / 거문고 소리'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환기하는 청각적 이미지이다.

18.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봄산'은 '솔이파리'와 '상수리나무 묵은 잎'처럼 '나'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겠군.
②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로 미루어 볼 때, 화자는 과거에 힘겨운 일을 겪었을 수 있겠군.
③ '거기 이는 바람'과 '찬 서리'는 '저 수 많은 새 잎사귀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경계하는 대상이겠군.
④ '지나온 날들처럼 / 남은 생도 벅차리'에서 과거를 수용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화자의 심리를 엿볼 수 있겠군.
⑤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